



P2-P3/ 교수칼럼

조석민 연구위원의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가 실려있습니다.



P4-P8 / 느헤미안 칼럼

김란희님의 '남국의 이틀'과 정원순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P9-P12 / 재정보고와 기도제목

느헤미야 소식과 재정보고 등이 실려 있습니다.

# 뉴스레터 느헤미야

2015년 9월호 (통권 4호)



2학기 입문과정 개강예배 모임중

**+ 화롯불 모임**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 입문, 심화반 졸업생들이 독서토론으로 모이는 화롯불 모임이 있습니다.

**+ 신학특강**

7/20 <창세기와 허블망원경: '창조과학'의 성경해석을 말한다> 라는 주제로 전성민 교수(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느헤미야 초빙연구위원)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100여명이 참석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성서한국 전국대회**

8/5-8 논산 건양대학교에서 열린 성서한국 대회에 참여하여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를 홍보하였습니다. 성서한국대회 주강사 및 선택특강 강사로 본원 연구위원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또한 어름축제 시간에 <교수들의 수다>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 헬라이어 기초강좌**

8/10-14 이형일 교수(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님의 지도로 헬라이어 기초강좌를 진행했습니다.

**+ 목회학/기독교학 연구과정 MT**

8/24-25 신학연구과정 1-2학년 학생들이 용인 고기동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학기 개강예배**

8/25 2학기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특강 및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연세대 정중훈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강경민 이사장님이 개강예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 8월 31일부터 2학기 전 과정 개강**

교수칼럼

##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 조석민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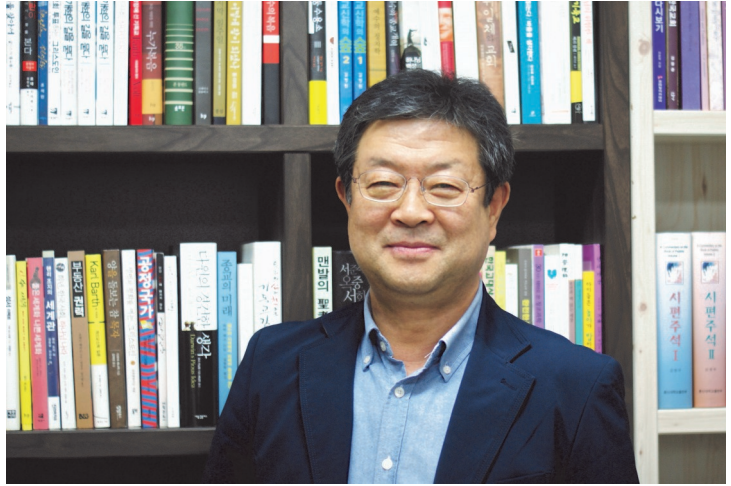
우리말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 또는 밝은 전망”으로 “절망”은 그 반대말이다. 이 시대가 희망을 말하거나 보여주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희망을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무지갯빛이었다. 하지만 무지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희망을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피부로 느낀다. 그 결과 더 이상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자신의 목숨을 더 이상 미련 없이 스스로 멈추어버린다. 이 나라는 이미 자살자 비율이 세계 1위가 된지 오래 되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은 정말 있는 것일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항상 소망의 등불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가 희망을 주고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미 한국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개신교는 손가락질 받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돈에 사로잡힌 교회, 거대한 건물을 꿈꾸는 교회, 부의 축적과 성공 신화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런 교회 안에 희망은 없다. 때때로 목회자의 범죄 행위가 지상파 TV 뉴

스에 등장하기도 하고, 세상과 다름없는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여과 없이 바라보아야만 할 때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교회 공동체 안에 희망은 어디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거룩한 포장지로 감추고 빙산처럼 사회 속에 등장할 때, 희망은 얼룩져버리고 찢겨져 버린다.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생각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우리 정치에 “희망”이란 단어를 사용할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사람들에게서 정치는 절망적이기에 투표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정치에 신물 난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침을 뱉을 뿐이다. 뱉어줄 침도 아깝다. 정치인이 과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일하는 것일까? 국회의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자로 일하는 것일까?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며, 눈앞의 이득을 위하여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노동현장과 경제 상황을 보면 희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재벌은 투자만



하면 돈을 버는데, 왜 중소기업은 그 재벌 기업이 하청을 주는데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뿐일까? 갑질을 당하면서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며 매달리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감추며 숨 쉬고 있을 뿐이다. 청년들이 갑질을 당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신음한다. 노동 현장의 실태는 빗더미에 눌린 젊은이들에게 이미 충분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젊은이들에게 “삼포시대”를 지나 “오포시대”란 말은 이미 낡은 고사성어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청년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더욱이 내 집 마련도, 대인관계도 포기하고 산다.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이다. 더 이상 꿈과 희망도 없다. 그렇다면 남는 게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며 그래도 한 자락 소망의 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을 시작하면서 “희망”을 사전의 정의에 따라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할 때 그것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만들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희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희생하며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힘을 다해 노력하고 희생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없는 희망을 노래해야 할까?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씨앗은 뿌려야 한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아직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그냥 쓰러질 수는 없다. 그래서 꿈틀거리고 움직여야 한다. 희망의 씨앗을 만지작거리며 뿌릴 곳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뿌려야 한다. 아직은 희망을 거두어들이 수 있을지 아무 보장도 없다.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자! 희망의 씨앗을 수확할 날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뿌린 씨앗의 열매를 수확할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몸을 사리지 않고 희생하며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대열에 앞장서는 것이다. 희망의 씨앗이 결실하기까지 삶을 바치는 이들이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와 교회의 작은 등불이다. 

느헤미안

## “남국의 이틀”

>> 김난희 목회학 연구과정 1년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  
 마지막 열매들이 영글도록 명하시어,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따뜻한 날을 베푸시고  
 ...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 중에서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이즈음에 참 잘 어울리는 시 한 편이다. 단맛이 들기 전의 시금털털한 그 맛을 ‘무겁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릴케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보통 시인이 아니다. 시고 짧은 맛의 포도란 돼지우리에 던져질 뿐이다. ‘남국의 이틀’이 더해지면, 먹는 기쁨은 물론 포도송이 알알이에 씨앗마저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8월 어느 무지하게 덥던 날, 이국의 정취 가득한 터키의 한 농장에서 연초록의 포도송이를 통째로 들고 먹던 그 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즐거움과 건강을 선사하

는 것은 바로 그 ‘남국의 이틀’로 가득 채워진 따가운 햇살 때문이리라. 이제 내 인생도 그 ‘남국의 이틀’로 채워야 하나니 벌써 ‘지천명’의 나이를 훨씬 지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 ‘이틀’을 못 참아 시금털털한 맛으로 버려진 인생과 산산조각이 난 관계들이 한 둘이겠는가. 마지막 기회일 것만 같은, 그 ‘이틀’이 기적처럼 내게 찾아와 이제 채워질 ‘남국의 햇살’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는 집을 짓지 않는다.’하니 시의 행과 어절 사이에 가득한 ‘적막’에 가슴이 잠긴다. 여름내 집을 짓기 위해 달려왔을 텐데, 사랑하는 이들과 제집 안 마당에서 웃음을 나눠도 가슴 한 비탈이 땀 뚫린 듯이 허무할 그 계절에 ‘집’이 없다면 그는 영원히 집이 없을 것이라는 시인의 독백이 경고처럼 시리다. 풍요롭지만 그래서 더 빈곤해져 누군가에게는 ‘역설의 계절’이 될 이때를 시인은 아파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찾아올 ‘절대 고독’과 그 고독으로 애통할 ‘빈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을은 이렇듯 내겐 많은 상념을 준다. 아직 가을은 저 멀리 있는데 찰나에 스치는 서늘한 기운에 벌써 몸서리가 쳐진다. 가을이 이끄는 창창한 하늘


과 그 투명한 바람이 몰고 올 쓸쓸한 기운 때문이다. 그럴 때면 밝은 달도 수시로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다. 그런 지독한 가을앓이를 사송동 작은 마을 어느 한 교회에 출석하고부터는 한 7년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난생처음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을 아침 새벽예배 조우하지 못하면 하루가 불편했던, 그렇게 내 신앙을 성장시켜갔던 그 교회.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나마는 내게 그 교회는 그렇듯 따뜻한 기억으로만 일렁인다.

시인 김춘수는 화가 이중섭이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고 했다. 가난 때문에 현해탄을 건너간 아내와 두 아들을 그리워하며 식구가 다시 돌아올 바다만을 하염없이 바라봤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가난과 그 바다를 머리에 이고 생을 마감한 이중섭. 나 역시 머리에 ‘사송동’을 이고 있는 것 같다. 하얗게 눈 쌓인 날이면 얼음 빙판에 아무도 못 올 마을 구석에 있는 사송동 교회를 향하여 아기 걸음보다 더 천천히 텅 비어 있을 새벽제단을 향해 조심 조심 나섰던 잉크 빛의 새벽길. 양팔을 벌려 문 활짝 열고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주님과 그의 황홀한 만남. 그 교회, 그 예배당을 이제는 갈 수 없다니. 슬픔이 어찌나 깊었던지 사막을 홀로 걷는 낙타 같았고, 벼랑 끝에 선 고아 같았다. 하나님은 떨어지는 낙엽만큼도 내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으셨다.

슬픔이 더 크면 이길 수 있을까, 더 슬퍼지면 그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나는 ‘애가’만을 열심히 찾아 들었다. 브루그만의 말처럼 “애통하는 데서 비판”은 시작된 걸까. 그때 만난 것이 ‘슬픈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통해 알게 된 곳이 지금 여기

‘느헤미야’. 이제야 알 것 같다. 주님은 내게 주실 ‘남국의 이틀’을 위해 그 날카로운 아픔을 겪게 하신 것 같으니 말이다. 아직 태양이 뜨거웠어도 추웠던 그 해 가을, 모든 것을 잃어 허탄한 내가 이 ‘느헤미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디에서 ‘이틀’을 못 채운 생의 무거움으로 비틀거리고 있지 않을까.... 끔찍한 가정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만을 명하셔야 한다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거라고 가르치는 이곳, 공동체는 서로를 책임지는 곳이며, 그 책임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을 때 작동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그렇게 행복했던 그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다. 그것만이었겠는가... 그 행복했던 교회를 나온 이유가.

우린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것을 던져 기초를 세우고 계신 교수님들께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아직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교수님들의 학문적 성과와 그 분들이 쌓아가는 일상의 분투 위에 덤으로 가고 있다. 청출어람도 있다지만 그건 참 드문 경우이고 그런 학생을 만날 수 있다면 교수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다. 대부분은 교수의 키만큼 자란다. 그 키가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으니 내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기독교원 느헤미야와 나의 기도와 성찰로 채워질 ‘남국의 이틀’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고 싶다. 그 집에 모두를 초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나누며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이웃 사랑’의 소명을 죽기까지 다 해 내고 싶다. “하늘의 음악 소리”에 춤을 추면서 말이다. 

인터뷰

## 느헤미야 최초의 후원자를 만나다

>> 정원순 기독교학 입문 3기 수료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느헤미야 1호 후원자이신 정원순 장로님을 만났다. 회색빛 개량한복을 정갈하게 입으신 멋진 모습으로 시종 유쾌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

-처음에 어떠한 계기로 느헤미야를 접하게 되셨는지요?

느헤미야 초대 원장으로 있었던 박득훈 목사가 중학교 동창이다. 중학교 때 무척 친한 친구였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같이 하였다.

2009년 교회개혁 현장에서 박목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전부터 박목사가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방법을 찾다가 느헤미야를 후원하게 되었다.

-올해 2월에 입문과정을 수료하셨는데...

중학교 때도 미션스쿨을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친구들 중에도 목사가 된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 전에는 '뉴스엔조이'에서 하는 성경공부 모임에도 참여했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입문과정을 들었다. 그 전에는 신학캠프에 참여하면서 교수님들을 알게 되었고 느헤미야 입문과정도 작년에 일 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마쳤다. 시간이 되면 심화반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중화동에 있는 '새샘 교회'에 장로임직을 받고 섬기고 있다. 나는 원래 모태신앙이다. 어렸을 적부터 다니던 교회가 분란이 있어서 몇몇의 장로와 권사들이 나와서 새로 만든 교회인데 현재 한 4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이다.

-전에 섬기시던 교회에도 어려움이 많으셨군요. 느헤미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장로님이 보시기에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느헤미야에서 교수님들과 일 년 동안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의 생각에 많은 동감을 하게 된다. 현재 기존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 전에 제자교회에 십여 년간 다니던 적이 있다. 집이 목동이어서 가까운 교회에 가족들이 나가면서 같이 다니게 되었다. 제자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2년 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였다. 매우 유익하고 좋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에 교회에 담임목사의 횡령 문제가 발생하였다. 박득훈 목사도 이러한 상황에서 만났다. 담임목사를 고발하는 법원 앞에서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고소문을

낭독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측의 박득훈 목사를 만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전 교회도 문제가 생겼으나 수습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교리나 도그마 속에 빠져서 자기 사람 만들기에 급급한 것 같다. 교회의 건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폭 넓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젊었을 때도 목사님들한테 잘 못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었다. 설교하는 목사가 내가 하는 말만 참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제자교회에서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제자훈련 받고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의 신앙 교육이 문제인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런 도그마에 갇혀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목사들이 자신들이 마치 선지자인양 성도들을 세뇌시켜 놓았다. 목사가 부정을 저지른 것을 다 알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고 말한다. 마피아 조직처럼 자기네들끼리의 연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박득훈 목사가 정말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하였다. 친구이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이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개혁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일상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도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이다. 교회 건물 속에 갇혀있는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지만 교회 밖으로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 세대와 지금 젊은이들은 신앙은 같아도 삶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교회가 가장 선진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버거워 한다.

요즘은 교회 중심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은 고생스럽게 우물을




파야만 얻을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요즘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이 아니다. 소자는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이다. 이런 자들에게 물 한잔 줄 수 있는 마음,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 필요하다. 나 혼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신앙 문제로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왔는데 주일날 쉬느라 교회 못 나가는 것을 억지로 나가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한다. 부모의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믿는 마음만은 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아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신앙서적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교회생활에 익숙해지기 보다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익숙해져야 한다. 신앙서적은 Q.T와는 다르다. Q.T는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시기에는 너무 삶의 적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로역정』 같은 고전들은 5년에 한 번씩 읽으면 좋다. 존 스토트의 책도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느헤미야 같은 교육기관이 진짜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힘을 모아서 조직화되고 커져야 한다. 이곳을 거쳐나간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응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수님들의 삶이 존경스럽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의논도 하면 좋은 대안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한걸음씩 나아가면 어느 때 인가 큰 나무가 될 것이다. 

\_ 대담 : 광명화





고대하던 <교회사의 숲>이 나온김에 저자이 하켜



걸어다니는 역사책 이만열교수님 수업시간



9월에 최연소 후원자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무려 이분은 13년생!



연구생인 이길송님의 노래가 참 좋더라구요



뉴스레터 발송노동에 동원된  
고마운 연구생무리들 II



2015년 2학기, <요한복음> 시간에 임하는 모두의 자태



햇볕좋은 날에 아주 '양전하게' 이불말리는 연구생들



2015  
느헤미아의 순간포착

### 기독교학 입문과정 **동영상 강의** 오픈



**구약**  
 구약이야기 I (율법과예언) | 김근주  
 구약이야기 II (역사와지혜) | 김근주

**신약**  
 예수와 하나님 나라 | 조석민  
 바울과 하나님 나라 | 권연경

**조직신학**  
 하나님과 그의 세상 | 김형원  
 하나님의 구원계획 | 김형원

**교회사**  
 교회역사 이야기 | 배덕만

**윤리**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 김동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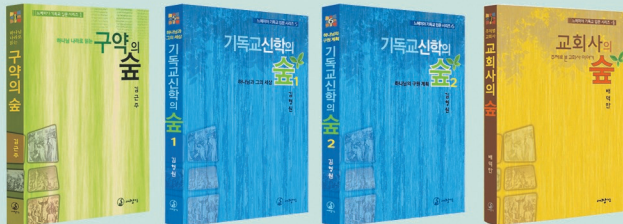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든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vimeo.com/nicsmedia/vod\\_pages](https://vimeo.com/nicsmedia/vod_pages) 로 들어가기

**2** 6개월간 볼 수 있는 한학기 강좌를 선택 (각 강좌 50\$)

**3** 모두대여를 클릭후 신용카드로 결제 메일만으로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동영상수강은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정구과목이수와는 별개입니다.



구약 : 구약의 숲  
 조직신학 : 기독교 신학의 숲 1, 2  
 교회사 : 교회사의 숲

김근주, 김형원, 배덕만 교수의 강의 교재는 대장간 출판사 <느헤미야 기독교 입문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시중서점이나 느헤미야에서도 구입가능

### 느헤미야 **이슈북** 시리즈



1.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
2.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복음이나 율법이나)
3. 목사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무엇이 문제인가?)

# 후원재정동역자와 재정보고 2015년 6~7월

## 개인후원

강도영, 강민혁, 강범일, 강성희, 강성태, 강인성, 강인자, 강진규, 강현걸, 강화춘, 고미혜, 고윤일, 고재광, 고재현, 공경표, 공영찬, 광명화, 구자옥, 권경욱, 권두현, 권명재, 권민영, 권민정, 권성호, 권세운, 권현아, 권현진, 기효홍, 김경란, 김경모, 김규동, 김근주, 김기범, 김기현, 김남희, 김대연, 김대원, 김덕, 김동훈, 김래산, 김미정, 김민석, 김민수, 김민철, 김봉혜, 김사원, 김상열, 김상욱, 김석원, 김석주, 김석태, 김신, 김선호, 김성열, 김성화, 김소희, 김수정, 김아름, 김아주, 김양현, 김연희, 김영숙, 김영진, 김옥경, 김요한, 김용순, 김인성, 김인정, 김인철, 김재신, 김정길, 김정은A, 김정은B, 김종욱, 김종필, 김주석, 김준길, 김준수, 김준희, 김지은, 김지인, 김지현, 김진우, 김진철, 김진희, 김철휘, 김태열, 김태운, 김태환, 김하양, 김하영, 김한나, 김현정, 김현주, 김형규, 김희정, 나정수, 나종삼, 남백희, 남오성, 남일성, 노민규, 노혜미, 노활석, 동방호현, 문기순, 문명관, 문인정, 문형욱, 문혜진, 문효린, 민은경, 민은주, 박국이, 박기웅, 박민균, 박병만, 박상백, 박성민, 박성준, 박소영, 박애영, 박연주, 박영혜, 박재이, 박재훈, 박정수, 박정숙, 박종만, 박준형, 박중순, 박진일, 박진호, 박현혁, 박형준, 박혜연, 박혜정, 방성희, 배명성, 배민철, 배소연, 배운기, 배태욱, 배한나, 백민정, 백승운, 백용환, 변성진, 변은혜, 서미영, 서연자, 서주희, 석은진, 성경식, 성시윤, 손주환, 손주희, 송경근, 송덕무, 송아진, 송은진, 송창달, 송현미, 송효진, 신선영, 신소옥, 신주현, 신지호, 신현오, 신혜성, 심재용, 안경숙, 안병열, 안재영, 여신애, 연문정, 오금애, 오세민, 오수경, 오숙현, 오주희, 오지현, 오혜경, 왕정수, 우승정, 우종학, 유가을, 유경원, 유명중, 유병욱, 유병진, 유병휘, 유슬, 유수경, 유슬기, 유영백, 유영성, 유욱, 유주환, 유태완, 유희창, 윤기석, 윤기원, 윤성은, 윤수일, 윤준택, 윤진아, 윤희정, 이경직, 이경하, 이규복, 이규복, 이길승, 이동주, 이로운, 이명희, 이미순, 이미영, 이방욱, 이병선, 이병욱, 이병훈, 이보람, 이사랑, 이상진, 이상호, 이세순, 이수미, 이수연, 이수정, 이순조, 이승민, 이신식, 이양철, 이연우, 이완수, 이용화, 이웅진, 이원근, 이윤정, 이윤희, 이은영, 이은재, 이일수, 이장은, 이재원, 이재은,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주, 이주연,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진숙, 이진희, 이창민, 이창선, 이태호, 이풍관, 이행구, 이향숙, 이현창, 이형석, 이희석, 임도훈, 임석란, 임종화, 임철호, 임혜진, 강건진, 장경숙, 장상순, 장은선, 장의신, 장인숙, 장재규, 장재원,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미아, 전성현, 전세훈, 전재운, 전준환, 정국진, 정명숙, 정석구, 정선희, 정수원, 정영빈, 정영희, 정원순, 정은주(정복순), 정이랑, 정재기, 정재도, 정재훈, 정지영, 정자은, 정지훈, 정진호, 정진희, 정찬형, 정철규, 정택인, 정혁규, 정혜경, 정희진, 정희원, 조경원, 조기행, 조성모, 조성영, 조성욱, 조성효, 조순혜, 조영민, 조원규, 조은아, 지성학, 지형은, 차미나, 차정호, 채미혜, 채인규, 채인혜, 채혜진, 천재성, 최경진, 최동국, 최미곤, 최성호, 최세진, 최소은, 최순남, 최영상, 최영희, 최유나, 최용주, 최윤호, 최은주, 최일호, 최자연, 최재훈, 최진선, 최진영, 최현복, 최혜영, 최황덕, 하규하, 하상호, 하태권, 한나영, 한명석, 한명호, 한미현, 한상은, 한석문, 한승환, 한유진, 한은혜, 한인희(유태호), 한지일, 한혜연, 함봉식, 허상영(조은연), 허성호, 허진석, 허한구, 현지훈, 호욱, 홍승민, 홍인경, 홍준호, 황가영, 황남조, 황선란, 황성주, 황준영, 황혜정

## 연구위원 후원

고선숙, 김인철, 김창식, 무명, 박금자, 이윤희, 조상우, 조석민, 한부홍

## 교회 및 단체후원

100주년기념교회, 개포동교회, 그루터기교회, 나들목교회, 산아래교회, 산울교회, 삼일교회, 새말교회, 서울영동교회, 신바람홍예기, 어.울림교회, 열린가정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사랑교회, 찾는다이광명교회, 한그루교회

## 장학후원

무명, 무명

## 목적후원

이유진(사무보조후원)

## 특정목적후원

정현구 (7월 이사회 식사), 유경석 (학사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직장인성경공부 모임BBB (산풍기 1대)

## 운영성과

계정과목	6월	7월
사업수익	14,006,057	16,573,900
후원금	12,940,000	13,495,000
일반후원금	11,190,000	12,745,000
특정후원금	1,750,000	750,000
사업수입	1,052,300	3,078,900
수강료수입	370,000	2,850,000
사업수입	682,300	228,900
기타수입	13,757	0
기타수입	13,757	0
사업비용	18,879,840	15,946,894
사업운영비	9,281,600	5,083,344
사업인건비	6,980,000	3,700,000
사업진행비	2,001,600	471,860
사업홍보비	300,000	911,484
관리운영비	9,598,240	10,863,550
인건비	3,661,300	3,822,860
사무관리비	5,936,940	7,040,690
당기 순자산의 증(감)	-4,873,783	627,006

## 재무상태

계정과목	금액
자산	
유동자산	30,805,076
당좌자산	30,805,076
비유동자산	60,413,450
투자자산	4,800,000
유형자산	35,613,450
기타비유동자산	20,000,000
자산총계	91,218,526
순자산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89,773,526
잉여차액	89,773,526
당기차액	29,797,130
순자산총계	91,218,526
부채와순자산총계	91,218,526

**느헤미야 일정**

**8/30** 고상환 사무처장이 후원교회인 부천 예인교회(정성규목사)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느헤미야 사역을 보고하였습니다. 혹 느헤미야 홍보가 필요한 교회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나 가겠습니다.

**9/11** 화룻불 모임: <타인의 영향력> 독서모임으로 진행합니다.

**9/14**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연중 포럼' 그 세 번째를 <성전과 예배당-예배당 건축과 교회본질의 훼손>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권연경, 김동춘, 조석민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10/3** 느헤미야 가족운동회가 열립니다.

**9/28~10/2** 이 주간은 추석연휴로 휴교합니다.

**10/16** 화룻불모임은 백소영교수의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사" 읽기 모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기도와 동역**

1. 2학기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하여
2. 전임교수 충원을 위한 후원자모집을 위하여
3.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편집부 알림**

느헤미야 뉴스레터는 격월로 발간됩니다. 이 뉴스레터는 후원자와 후원교회에 한하여 발송됩니다. 좋은 글을 보내주시면 실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후원자와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실 때마다 동역의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후원자님들은 사무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느헤미야**

**발행인** 김형원

**편집인** 고상환

**편집부** 광명화 배한나

**발행일** 2015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H.** www.nics.or.kr **P.**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

**팟캐스트.** 예고에이미

**후원방법**

<정기후원>

www.nics.or.kr/funding에서  
자동이체후원 신청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연구위원 후원**

신한 100-027-945530

**학생 장학금 후원**

국민 012501-04-251307

**해외에서 후원**

Swift CODE : CZNBKRSE

국민 822401-04-042816